

# 딱 찬 걸과 속, 바다를 지키는 반백의 잠녀

발로 딛는 제주잠녀의 삶-구좌읍 월정리

등록 : 2008년 12월 30일 (화) 15:51:12  
최종수정 : 2008년 12월 30일 (화) 15:51:12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지난해 소라 2만8000kg수확 등 넉넉한 바다밭...60대 이상 잠녀 55명 고령화 심화  
전복종패사업 희망 대신 포기, 툫 등도 양 크게 줄어, 변화 앞두고 걱정만 기대반**

고즈넉함, 월정 바다는 그 느낌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모래밭을 끼고 잘 조성된 해안 공원이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간판도 없는 농협 출장소까지, 시간이 잠시 머물다 지나쳐버린 공간이란 느낌이다. 바다에 한눈을 파는 것도 잠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바다에 가슴이 매일 듯한 찬 바람이 분다.

## △아름다운 걸과 풍부한 바다

김녕과 행원 사이의 월정 바다는 걸과 속이 짝 찼다.

'무주매', '무주리'로 부르다가 달이 뜨는 아름다운 해변의 촌락이라는 의미를 담은 '월정(月汀)'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 커졌다는 설촌 유래도 쉽게 수궁이 간다.

이곳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규모는 구좌읍 내에서 하도·김녕·행원 다음으로 꼽을 정도다.

지난해 3만1000kg이던 소라 TAC물량 중 2만8000kg을 채웠다. 가격이 좋지 않았던데다 해수온이 오르면서 상당기간 수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았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바다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요즘은 가을처럼 별이 좋은 날이 많지만 그렇다고 바다에 드는 날이 많은 것은 아니다. 바람도 세려니와 일본 사정으로 잡아둔 소라를 수매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

환율 덕분에 조금 허리를 펴나 했는데 잠녀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체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곳에서 상시로 물에 드는 잠녀는 82명. 전체 어촌계원이 175명이고, 나이 등의 이유로 바다를 떠난 잠녀들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다.

50~60대가 55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40대가 1명인데 반해 70대 이상이 26명이나 된다. 바다는 여전히 푸른색인데 잠녀들은 반백을 훨씬 넘겼다.

어장관리선이 있어서 상군인 잠녀 15명 남짓은 먼 바다에서도 작업을 한다. 뱃삐는 잡은 양에 따라 결정한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고 손을 쉬는 잠녀는 없다. 마늘이며 당근, 쪽파 등 밭 작업으로 마을은 바다처럼 텅 비었다.

### **△거센 바람 같은 변화 앞뒤**

소라 외에도 천초와 툫 등 해초와 성게·전복 등을 망사리에 담는 것은 여느 바다와 비슷하다.

'아끈조금'에서 '여섯물'까지의 천초 작업에는 잠녀 외에도 어촌계 조합원이 함께 나선다. 툫 작업은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천초는 30kg 포대로 457개를 작업했다. 툫은 채 몇 포대를 채우지 못해 참여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 만큼씩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이곳 바다에도 몇 년 전까지 희망을 걸고 전복 종패를 뿌렸었다. 연간 자연산 10kg정도가 잡히는 것 외에는 꼭꼭 숨어 보이지 않는 전복에 맥이 풀린 잠녀들은 최근에는 종패 사업을 밀지도 하지도 않는다.

대신 잔 소라를 키워 잡는 섯바당 작업은 연간 3번 정도지만 일할 맛이 난다.

어촌계 살림은 낚치 양식 양어장 3곳을 빌려주고 받는 수익금과 어장관리선·어촌계팬펜 임대료, 정치망 어선 임대료 등으로 꾸린다. 이 것 역시 마을과 반씩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월정 바다에 다시 거센 바람이 내리친다.

사시사철 거센 바람이 불어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풍력발전기가 세워진 이유가 분명하다.

이곳에는 2012년까지 풍력발전기 12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세계자연유산 사업과 함께 친환경 농촌마을 육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테마관광상품 개발 등의 발전 방안도 구성되고 있다.

그렇게 바다는 변화 앞에 서있다. 그 안에서 세월의 뒀안길로 접어든 잠녀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은 이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다음은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수협과 서귀포 수협 내 어촌계들에 대한 종합 정리를 실습니다.